

2026.04.13

Global Market Wrap-up

중동 지정학적 충격과 시장의 복원력
(Geopolitical Shock & Market Resilience)

2026년 4월 13일 장마감 기준





\$103.68

중동 리스크 및
유가 8% 급등.
글로벌 변동성 확대 및
금리 상승 압력 지속.



5,808.62pt

KOSPI 5,800선 공방전.
저점 방어 여부가
외국인·기관 매도
흐름의 향방을 결정.



스페이스X

Tech & Crypto 강세.
기술주와 비트코인
중심으로 위험자산
매수세 복원력 증명.

유가 뛰어도 이란 자금줄 차단...
트럼프 해협 봉쇄 예고

미국-이란
휴전 협상 결렬

호르무즈 해협 긴장 및
항구 봉쇄 우려 고조

WTI 유가 8% 급등
\$103.68 돌파 / 가을까지 지속 전망

글로벌 인플레이션 및
금리 상승 압박 재점화

Risk-Off / Macro Pressure

Commodity Catalyst

Risk-On / Alternative

미 국채 10Y



4.359%
(+5bp)

FOMC 매파 기조
재부각

금 (XAU)



\$103,000
(+\$18)

안전자산 선호 지속

원/달러 환율



₩1,488.85
(-5.30)

1,500원 아래로 회복
(글로벌 증시 랠리 일조)

WTI 원유



\$103.68
(+\$2.62)

OPEC 감산 연장 기대
및 중동 리스크

비트코인



\$103,000
(+\$1,240)

ETF 순유입
지속되며 강세

Asia (Impacted)

일본 닛케이 225: 56,734.00 (+0.46%)

중국 상하이/항셱: +0.45% / +1.59%

아시아 전반 유가 악재르 혼조세 속 중국 본토는 견조

Europe (Resilient)

독일 DAX: 24,998.00 (+0.80%)

영국 FTSE 100: 10,556.00 (+0.7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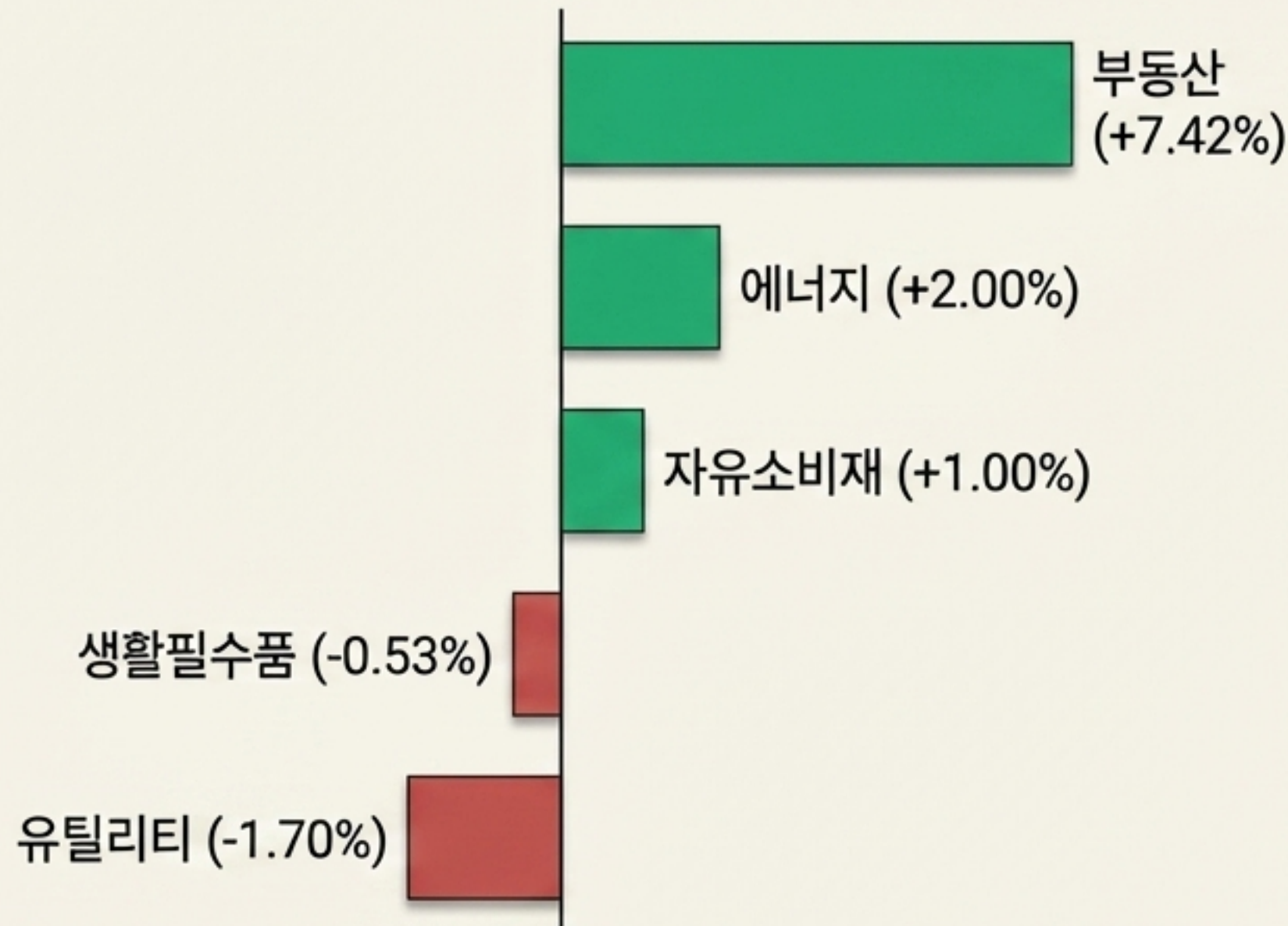
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반영

US (Mixed)

S&P 500 & DOW: +0.00% (보합)

이란 제재발 지수선물 하락 압력을 소화하며 강보합 방어

미국 1일 섹터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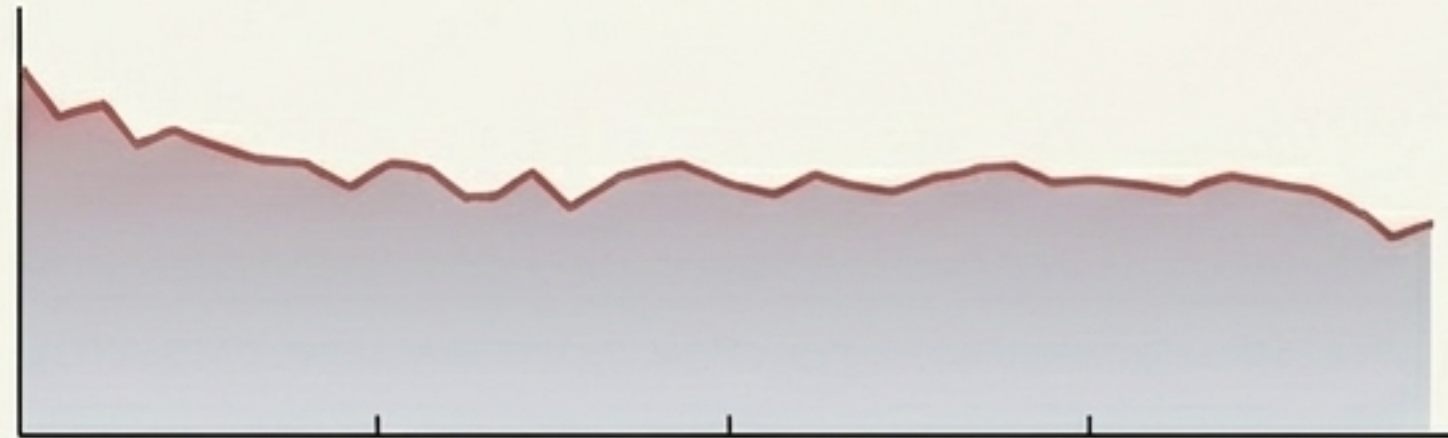
NASDAQ:
22,822.40 (+0.17%)
나홀로 상승

Key Driver:
 스페이스X 나스닥 데뷔 기대감 집중.
 서학개미 수급 유입 조짐.

관련 뉴스: 스페이스X 나스닥 데뷔 앞두고...
 '국장 개미' 청약 열릴까

KOSPI 5,808.62 (-0.86%)

5,800선 사수 성공



KOSDAQ 1,099.84 (+0.57%)

바이오/IT 종목 기대감 반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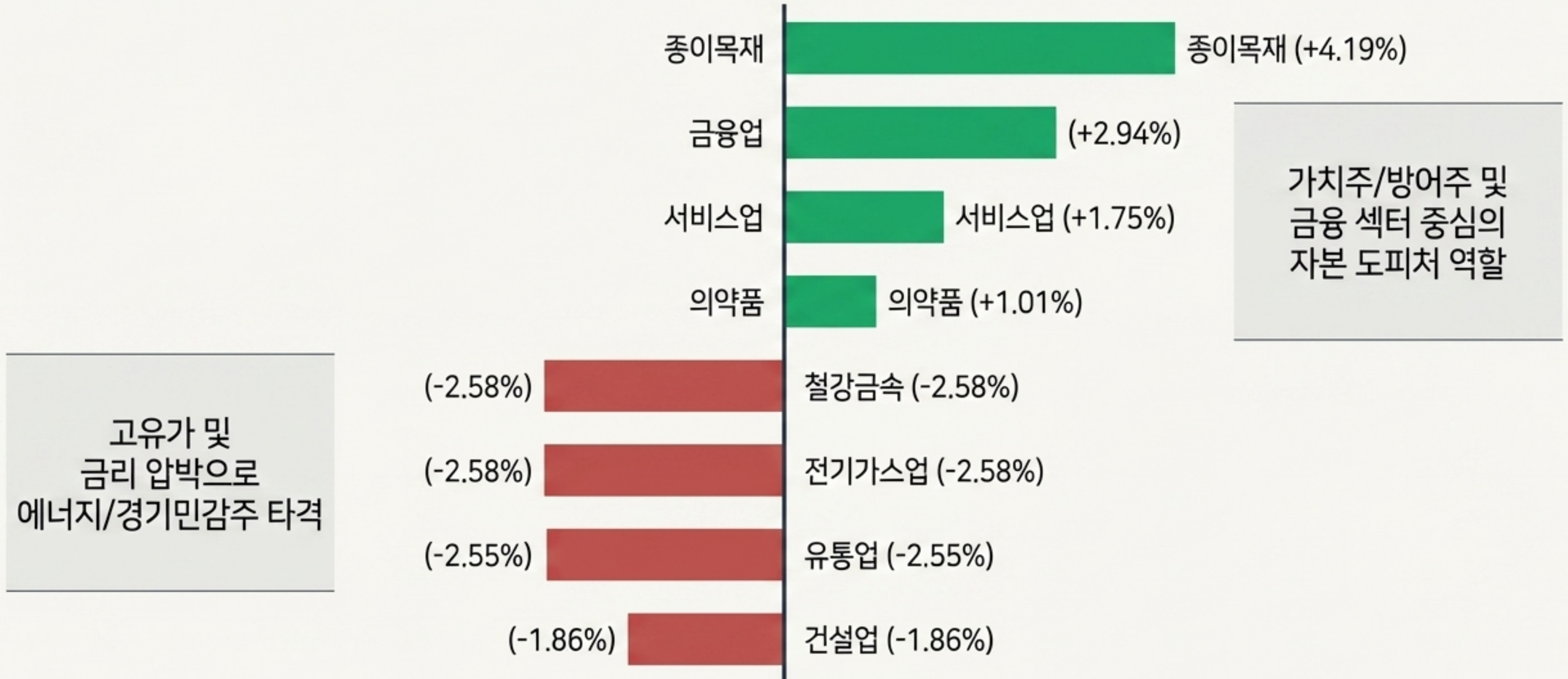
개인투자자 순매수 175만주

저가 매수세 및 삼성전자 집중

외국인/기관 순매도 합산 366만주
(외인 144만 + 기관 222만)

지정학적 리스크 회피

섹터별 수익률 비교 (Tornado Chart)



삼성전자

201,000원 (-2.43%) / 시총 1189.8조

SK하이닉스

1,040,000원 (+1.27%) / 시총 741.2조

LG에너지솔루션
(-2.55%)

현대차
(-2.25%)

POSCO홀딩스
(-2.44%)

삼성바이오로직스
(-1.07%)

기아
(-1.07%)

모전말바이스
(-4.7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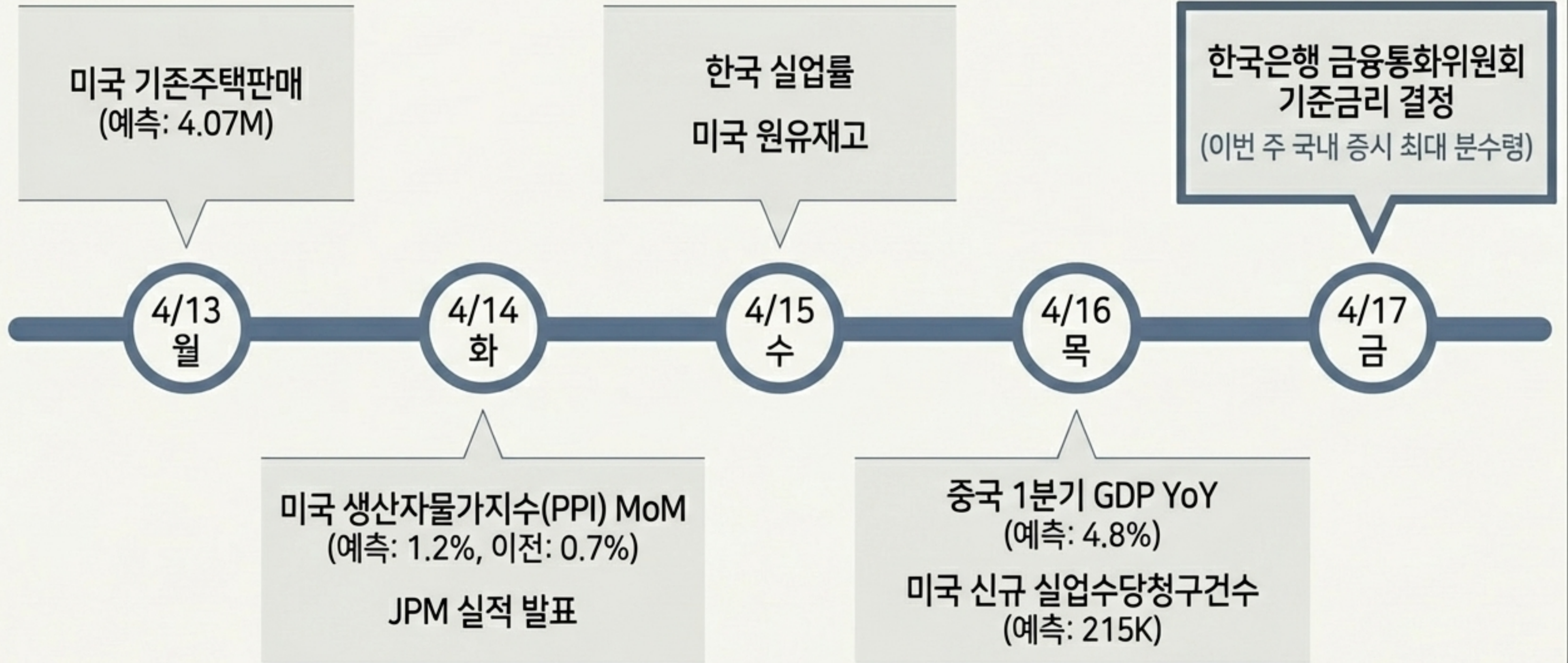
LG화학
(-4.49%)

삼성바이오로직스
(-1.34%)

삼성SDI
(-0.73%)

NAVER
(-1.49%)

주요 경제 이벤트 타임라인 (4/13-4/17)



[Macro Hedge]**유가 100불 재진입 헷지**

미국-이란 협상 결렬로 가을까지 고유가 지속 전망.
에너지 및 서구권 방산 섹터 중심의 포트폴리오 헷지 비중 유지 필요.

[Domestic Core]**5,800선 지지력 및 금통위 경계**

코스피 5,800 방어는 성공했으나 외국인 366만주 매도 압력 지속.
4/17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전후로 시장 변동성 확대 유의.

[Alpha Focus]**혁신 기술주 중심의 압축 대응**

매크로 충격에도 나스닥 상승과 코스닥(+0.57%) 반등을 이끈
스페이스X(우주테크) 및 글로벌 AI/반도체 자산으로의 수급 쏠림 활용.